

'예비 국대' 2026 WBC 1차 캠프 명단 확정

'베테랑' 류현진·노경은 합류… 김도영 부활 여부 관건
LG 8명으로 최다, 롯데는 0명… MLB 선수들은 아직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한 1차 사이판 훈련 캠프에 합류한다.

'불혹의 헐드왕' 노경은(41·SSG 랜더스)과 올해 세 차례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전한 우타 거포 김도영(22·KIA 타이거즈)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BO는 3일 "강화위원회가 2026 WBC 1차 캠프에 참가할 국내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1차 캠프는 투수 16명, 야수 13명으로 구성했다"며 "내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사이판에서 열리는 1차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에 열리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해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전했다.

눈에 띠는 이름은 류현진과 노경은, 그리고 김도영이다.

류현진은 올해 9승 7패, 평균자책점 3.23을 올렸다. 규정이닝을 채

우지 못했지만, 12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에 평균자책점 전체 9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류현진이 2026 WBC 대표팀에 합류하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 마크를 달고 마운드에 선다.

노경은은 올해 KBO리그에서 3승 6패 3세이브, 35홀드, 평균자책점 2.14로 호투했다.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젊은 불펜진이 고전하는 모습을 본 류현진 대표팀 감독은 베테랑 노경은을 1차 캠프 명단에 포함했다.

거듭된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해 쓴 맛을 본 김도영의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폭발적인 장타력과 기민한 발을 앞세워 2024년 프로야구를 평정한 김도영은 올해에는 불과 30경기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쿠바와의 결승전. 류현진이 8회까지 호투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출전한 뒤 치료와 재활로 내년 시즌을 벼르고 있다.

류현진 대표팀 감독은 따뜻한 사이판에서 치르는 1차 캠프 때 김도영의 기량을 점검한 뒤 최종 엔트리 발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캠프 명단에는 'KBO리그 우승팀' LG가 가장 많은 8명을 배출했다. 롯데에서는 한 명도 뽑히지 않았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해성(로스엔젤레스 다저스), 김하성(자유계약선수) 등 현역 벅리거의 사이판 훈련 합류는 미정이다.

KBO는 최종 명단 30명은 2월 3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WBC 1차 캠프 참가 국내 선수 명단 ▶ 투수=유영찬·손주영·송승기(LG), 문동주·정우주·류현진·(한화), 조병현·노경은(SSG), 원태인·배찬승(삼성), 김영규(NC), 소형준·고영표·박영현(kt), 곽빈·김택연(두산), ▶ 포수=박동원(LG), 최재훈(한화) ▶ 내야수=문보경·신민재(LG), 노시환(한화), 김주원(NC), 김도영(KIA), 송성문(기아), ▶ 외야수=박해민·홍창기(LG), 문현빈(한화), 구자욱(삼성), 안현민(kt). 총 29명. 연합뉴스

김진석·이선희, 아시안 유스파라게임 출전

10일부터 두바이서 개최

45개국 1200여 명 참가

제주를 대표하는 장애인 청소년 육상선수 김진석(제주영송학교·고3)과 이선희(서귀포온성학교·고3)가 '2025 두바이 아시안 유스파라게임(Asian Youth Para Games)'에 출전한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페럴림픽위원회(APC)가 주최하고 2025 두바이장애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이다. 장래 패럴림픽스타 발굴의 핵심 대회로 평가되고 있고 45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제주에서는 육상 T37 등급(뇌병변) 선수인 김진석과 이선희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두 선수는 오는 8일 출국해 16일까지 대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이들의 성공적인 국제무대 도전을 위해 경기력 향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두바이 아시안 유스파라게임에 출전하는 김진석(왼쪽)·이선희(오른쪽).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왕조 4번타자' 최형우, 9년 만에 삼성 복귀

2년 총액 26억원에 FA 계약
KIA, 선수유출에 '추운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최형우(41)가 9년 만에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했다.

프로야구 삼성은 3일 최형우와 계약기간 2년,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 2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최형우는 2002년 전체 48순위로 삼성에 입단해 2004시즌을 마치고 방출됐으나 경찰야구단에서 두각을 보여 2008년 삼성에 재입단한 뒤 신화를 써내려 갔다. 리그 최고의 타격 실력을 발휘하며 최형우는 삼성 왕조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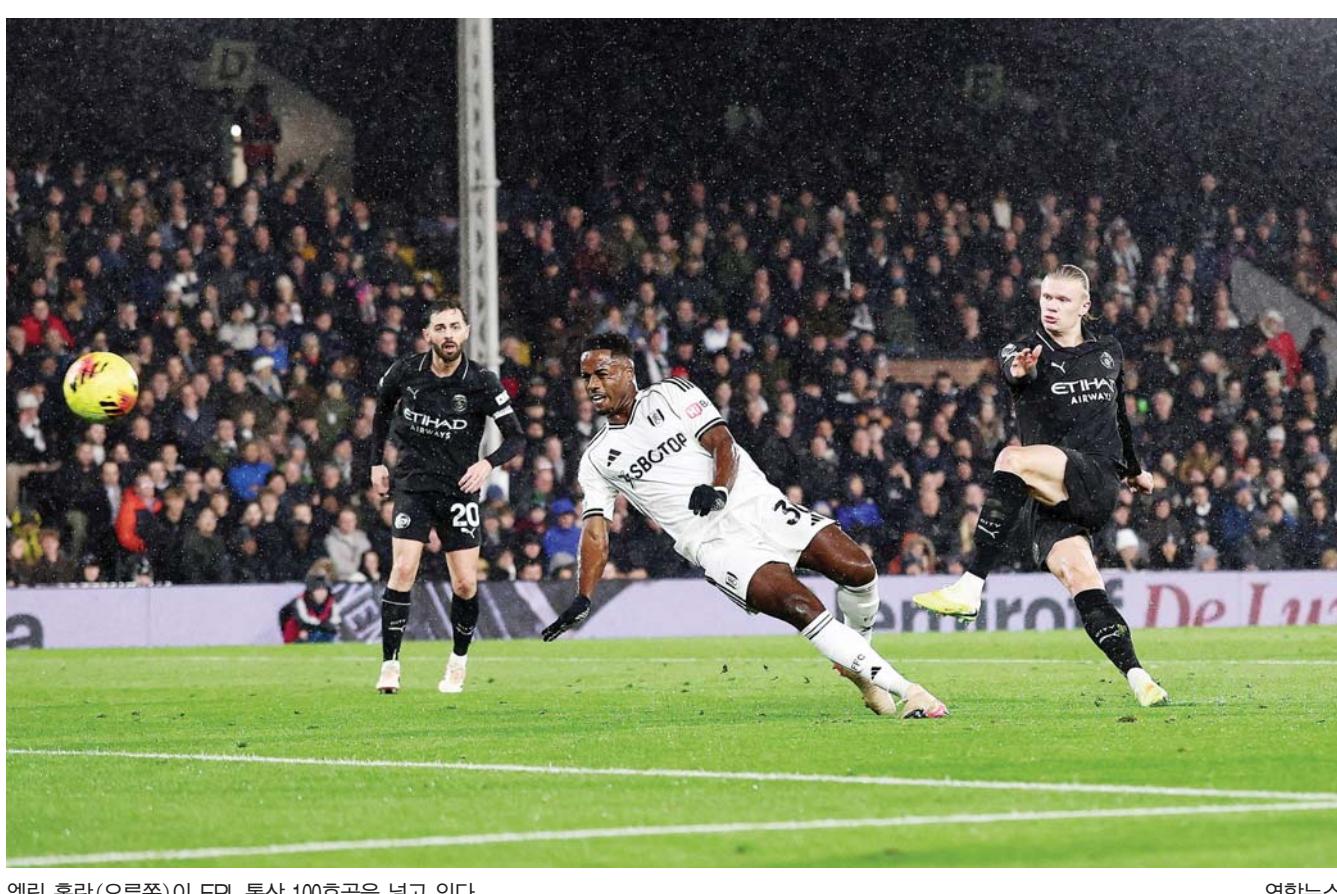
생애 첫 FA 자격을 얻은 최형우는 2016년 11월 KIA 타이거즈와 4년 총액 100억원에 도장 찍었다.

최형우는 FA 시장이 열리기 전

원소속팀 KIA와 계약할 가능성이 커 보였으나 친정팀 삼성이 파격적인 대우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9년 만에 대구로 복귀했다.

최형우는 추신수가 지난 프로야구 타자 최고령 기록을 모두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KIA는 박찬호(두산), 한승택(kt)에 이어 최형우마저 다른 팀으로 보내 내부 FA 3명을 차례로 놓쳤다. KIA는 내부 FA 불펜 투수 이준영과 계약했을 뿐, 외부 FA는 단 한 명도 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홀란, EPL '새 역사' 써간다
리그 111경기 만에 100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에서 활약하는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25·노르웨이)이 '전설' 엘런 시어러를 넘어 EPL 역사를 새로 썼다.

홀란은 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25-2026 EPL 14라운드 풀럼과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2도움을 올리며 맨시티가 난타전 끝에 5-4로 이기는데 큰 힘을 보탰다.

특히 홀란은 0-0으로 맞선 전반 17분 선제골을 넣으며 EPL 통산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시어러(441경기 260골)가 124경기에 밟은 100골 고지를 111경기 만에 올라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시상 : 남, 여 각각

1위 : 50만원, 파크골프채 (우승트로피)

2위 : 30만원, 파크골프채

3위 : 20만원, 파크골프채

홀인원상 - 40,000원(골프가방) * 선착순 10명

알바트로스상 - 30,000원(파크골프공) * 선착순 10명

총 30명 행운권 추첨 - 공, 모자, 장갑 등

경품 : 드림타워 뷔페식사권, 신화월드 숙박권 등

참가자 전원에게 점심, 파크골프공, 스크린파크비용 제공

제주파크골프스포츠클럽

제주CBS배 스크린파크골프대회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장소 : 바이킹스크린파크골프제주점

대회구장 : 제주 회천 스크린파크골프

1. 참가신청방법

가) 협장 접수 (바이킹스크린파크골프 070-8900-7900)

나) 핸드폰 접수 (010-9559-6822)

문자로 접수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

2. 참가비 (3만원)

입금 계좌 : 농협 351-1375-5426-83

예금주 : 사단법인 제주파크골프스포츠클럽

주최 : 제주 CBS

주관 : (사)제주파크골프스포츠클럽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은행, 제주신용협동조합, (주)명승, 킹스타파크골프, 제이케이글로벌(주)

